

세계도시

2006. 6. 5 제144호

목 차

도시경영·경제

1. 지역연대형 모델 상점가 사업 실시 (동경)
2. 수의계약이 가능한 신상품 사업자 모집 (일본 미야기縣)
3. '관광 르네상스 교실'을 통해 관광진흥 리더 육성 (일본 야마나시縣)
4.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에 총력 (상해)

디지털 도시

5. 유명 기념물에 대한 인터넷 정보폴 개설 (베를린)

복지·문화

6. 맞벌이 부모를 위한 추가 육아 지원 정책 (런던)
7. 모든 시·구청에서 청각장애우를 위한 비디오 통역 서비스 실시 (파리)
8. 탁아시설 대폭 확충 (파리)

도시환경

9. 구청이 새로 심은 가로수를 가꿀 주민 모집 (런던)
10. 소각재를 활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도쿄 에코 시멘트화 시설' 완공 (동경都 타마 지구)
11. 절수형 세탁기 구입시 보조금 지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12. 옥상 녹화와 고반사율 도로 시공 지원사업 실시 (동경)
13. 쓰레기 재생 발전소가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 (영국)
14. 지렁이나 유용 미생물군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실험 실시 (히로시마)
15. 열섬 대책으로 벽면 녹화 가이드라인 작성 (동경)

도시교통

16. 안전하고 매력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주차공간 설계 제안 (영국)

도시계획·건설·주택

17. 지방정부 도시계획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영국)
18. 역사건축물 보호 세부기준 작성 추진 (상해)

방재·안전

19. 방범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민간파출소 (일본)
20. 템스강 범람 예측 조사로 수해 안전성 점검 (런던)
21. 재해 발생에 신속 대응하는 종합방재정보시스템 운용 (일본 미야기縣)

1. 지역연대형 모델 상점가 사업 실시 (동경)

일본 동경都는 환경·복지·관광 분야의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지역살리거나 동네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점가와 지역주민, 대학, 기업, NPO 등이 연대한 ‘지역연대형 모델 상점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2개 사업에서 2006년에는 4개 사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모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카나와(高輪) 변신 사업이다. 이 모델 사업은 센가쿠지(泉岳寺), 오슈가도(奥州街道) 등 역사자원·호텔·대사관·학교가 혼재하는 타카나와의 고유한 지역성을 활용해 매력 있는 동네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동해도로 주변 시가지 정비 사업이다. 舊 동해도로 주변지역의 상점가뿐 아니라 후미진 도로까지도 가로등을 설치해 역사적 경관 분위기가 나는 시가지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셋째, 커뮤니티 포인트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이다. 환경개선 사업이나 동네만들기 활동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커뮤니티 포인트를 부여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점가와 지역이 일체가 되어 동네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시바마타(柴又) 재현 및 등불 밝히기 계획이다. 관광객들이 고즈넉한 시바마타의 모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향후 동경都는 都 중소기업진흥공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발족해 사업 계획 개선을 위한 자문을 하고 사업비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5/20g5c2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일본 동경都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연대형 모델 상점가 사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 시에서도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인사동 문화지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북촌 한옥마을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경都에서 추진중인 ‘지역연대형 모델 상점가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박희석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hspark@sdi.re.kr)

2. 수의계약이 가능한 신상품 사업자 모집 (일본 미야기縣)

일본 미야기(宮城)縣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縣의 물품 조달시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신상품 사업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縣의 구입 기회를 늘려 신상품 판매 실적 증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인 인지도 향상을 꾀하려는 것이다. 縣은 이 제도를 통해 신상품 개발이나 신사업 분야 개척 의욕을 더욱 고양해 縣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신상품 사업자로 지정되면 통상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신상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06년 10월에 개최될 ‘미야기 우수 물품 및 기술 박람회’에서 PR 공간 제공 등 우대를 받게 된다.

(www.pref.miyagi.jp/shinsan/chusho/sinsyohin-bosyu.htm)

3. '관광 르네상스 교실'을 통해 관광진흥 리더 육성 (일본 야마나시縣)

일본 야마나시(山梨)縣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활약할 리더를 육성할 목적으로 '관광 르네상스 교실'을 열어 관광업계뿐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행정관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관광 르네상스 교실은 관광행정학습회, 관광진흥연구회, 시찰연수 등을 연간 8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자유토론이나 의견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각 지역의 동네만들기 추진 방향과 역할을 토론했다. 수업은 매월 1회,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www.pref.yamanashi.jp/pref/news/viewNews.jsp?id=1146119688150&dir=200604)

4.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에 총력 (상해)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장강 삼각주의 중심도시인 상해市는 글로벌기업의 본부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비영리기관인 '상해市 기업유치 촉진센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전략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정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본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미 제조업 위주의 도시구조를 서비스·금융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표방한 상해市는 각 구역별로 핵심 산업을 분산해 본부를 유치하고자 한다. 현재 市에는 100여개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가 있으나 경쟁 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차이를 줄이고자 힘쓰고 있다.

(www.shghj.gov.cn/front/contentWord.php?contentId=7960)

한줄 뉴스

<동경>

- 2011년 완공 예정인 제2 도쿄타워 개관 후 1년간의 경제효과 473억 엔(약 4000억 원) 예상
- 동경都 미타카市,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용을 개시해 2006년 중 ISO14001 인증 취득 추진

<북경>

- 여성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 설명회 개최 등 '북경 어머니 지원 프로그램' 시행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보호를 위해 민영주택 거래시장 동태 감독제도 시행
 - 52종의 규정 위반시 영업허가 및 인터넷 거래 권한 일시 정지. 주택거래 사이트에 위반행위 공시
- 북경 교외(校外) 교육협회, 초·중학교 매주 만나질 교외활동 시범 시행 발표
- 2008년 올림픽 개최 전에 40개 전통기업 중심으로 1~2개 전통기업 집중지구 조성키로
- 5월 3일부터 북경市 최초로 승무원이 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운행

디지털 도시

5. 유명 기념물에 대한 인터넷 정보풀 개설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 기념물부는 2006년 4월부터 베를린의 유명 기념물에 대한 정보풀(Information Pool)을 선보였다. 시 도시개발부 홈페이지(www.stadtentwicklung.berlin.de/denkmal/liste_karte_datenbank)에서 '기념물 목록'을 통해 베를린 소재 유명 기념물을 살펴볼 수 있으며, 8000여 개의 특정 건축물이나 지역, 정원 등의 지도 및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기념물 카드'도 있다. 소재지, 기념물 유형, 기념물 번호 등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기념물 은행'에서 해당 기념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4/nachricht2232.html)

복지 · 문화

6. 맞벌이 부모를 위한 추가 육아 지원 정책 (런던)

영국 런던시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육아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런던과 같이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 탁아시설 이용비용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주당 175파운드(약 31만원)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부모의 육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추가 육아 보조금 정책은, 부모가 중·저소득층에 속할 경우 받는 육아 보조금(주당 175파운드)보다 비싼 탁아시설 이용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들어 약 3000명의 어린이가 추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The Londoner, 2006. 5)

>>> 전문가 검토의견

적절한 보육시설 제공과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공보육의 두 가지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런던시의 추가 보육료 지원은 도시지역 부모들의 실제적인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적인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폭에 있어서 지역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추가 보육료 지원제 도입은, 민간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보육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보육현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접근이 아닐 수도 있다. 보육아동 개인에게보다는 시설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지원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7. 모든 시·구청에서 청각장애우를 위한 비디오 통역 서비스 실시 (파리)



프랑스 파리의 모든 시·구청에서 '웹수흐'(Websourd)라는, 청각장애우를 위한 비디오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수화(手話)를 통역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청 담당직원과 청각장애우가 수월하게 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담당자와 미리 약속하지 않고도 바로 시·구청 담당창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낮 12시까지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www.websourd.org)

>>> 전문가 검토의견

2005년 말 현재 서울시에는 2만 90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있지만, 수화통역센터는 6개소에 불과하고 관공서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곳도 거의 없다. 수화를 비디오로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민원안내실에 통역을 위한 컴퓨터 설비를 갖추는 것은 지금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수화를 번역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다. 수화를 비장애인에게 통역해주고, 비장애인의 언어를 다시 수화로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혜 도시사회부 선임연구위원(khkim@sdi.re.kr)

8. 탁아시설 대폭 확충 (파리)

2001년에 2433개였던 파리의 탁아시설이 2006년에는 3212개로 늘었다. 이중 1156개는 3살 미만의 아이를 위한 것으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돌봐준다. 100개의 새 건물을 지어 3세 미만 아이를 위한 시립 탁아소 '크래쉬'(creche)와 3세 이상 아이를 위한 시립 유아방 '알뜨-가드히'(haltes-garderies)를 만들어 2006년 3월 31일에 새로 문을 열었다. 이는 파리 가정과 유아담당 부책임자인 올가 트로스피안스끼(Olga Trostiansky)가 임기 초인 2001년에 처음 제기해 지속적으로 진행한 야심찬 프로젝트다. 시는 2008년까지 5200개의 탁아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의 약 55%는 파리 10, 17, 18, 19, 20구에 우선 마련됐으며 2006년에 12, 15, 19구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www.paris.fr/portail/Solidarites/Portal.lut?page_id=98&document_type_id=4&document_id=19193&portlet_id=10014)

9. 구청이 새로 심은 가로수를 가꿀 주민 모집 (런던)

영국 런던 그리니치 구청은 최근 교체 식수한 가로수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귀하의 집 근처에 가로수를 새로 심었습니다. 가로수를 가꾸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다. 단순히 가로수 교체 작업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가로수 주변 잡초 제거, 물주기, 나무 훼손방지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사실상 '우리집 앞 가로수'를 입양한 듯 가꿔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연간 8만 5000파운드(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가로수 교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해 지역주민 참여 아이디어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구청은 밝혔다. 하지만 지방세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가로수 관리나 도로 정비와 같은 지방정부의 기본임무를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Metro, 2006. 5. 3)

>>> 전문가 검토의견

내집 앞 가로수를 시민이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은 도시환경 관리에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로수 관리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서울의 경우 고층 공동주거단지가 대부분이어서 내집 앞 가로수의 개념이 약하다. 도로에 인접한 상가의 경우도 상가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입주해 있고 상가영업에 가로수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가로수 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저밀 개발된 상가 및 주거지에 인접한 가로수의 경우는 지역의 양호한 녹지를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 환경단체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송인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injusong@sdi.re.kr)

10. 소각재를 활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도쿄 에코 시멘트화 시설' 완공 (동경都 타마 지구)

일본 동경都 타마(多摩) 지구 26개 市町の 도쿄 광역자원순환조합이 관리하는 닛쯔카(二ツ塚) 폐기물 광역처분장에 '도쿄 에코 시멘트화 시설'이 완공되어 2006년 6월 중에 가동한다. 이 시설에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반입된 쓰레기 소각재에 석회나 철분 등을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한다. 연간 약 9만 4000톤의 소각재에서 약 13만 3000톤의 시멘트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설은 2003년부터 약 270억 엔(약 2241억 원)을 들여 건설되었으며, 유지·관리에 연간 약 26억 엔(약 21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쿄 광역자원순환조합은 태평양시멘트 등이 출자해 만든 도쿄 에코 시멘트 주식회사에 20년간 운영을 위탁한다. 닛쯔카 폐기물 광역처분장은 1998년에 매립했고, 2000년 확장공사 때 토지양도를 거부하는 트러스트 운동이 일어나 都가 강제수용을 단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기존 상태로는 처분장 내 매립이 2013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 시설이 완공됨으로써 향후 30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ww.yomiuri.co.jp/e-japan/tokyotama/news001.htm)

11. 절수형 세탁기 구입시 보조금 지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다양한 물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절수형 세탁기를 구입하면 한 대당 150호주달러(약 10만 5000원)를 州예산으로 보조하며, 이를 통해 하루 100만 리터의 물 절약을 기대하고 있다. 전체 물 소비량의 70% 이상을 가정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도 주로 가정용 물 절약에 맞추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샤워헤드, 수도꼭지, 변기 등에 절수장치 무료 설치, 가정에 빗물탱크 설치시 650호주달러(약 45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가정에서 스프링클러 사용 금지, 주 2회로 한정해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만 잔디와 정원에 물주기 등이다. 물 절약 정책에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州정부 홈페이지에는 13개 언어로 대(對)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위해 한국어로도 '21가지 절수방법-정원과 가정에서'라는 제목으로 절수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www.sydneywater.com.au/SavingWater/WashingMachineRebate)

12. 옥상 녹화와 고반사율 도료 시공 지원사업 실시 (동경)

일본 동경都 쿨 루프(cool roof) 추진협의회는 지구온난화 및 열섬(heat island) 대책의 일환으로 옥상을 녹화하거나 고반사율(高反射率) 도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일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공모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환경성이 주관하는 '환경과 경제의 호순환 동네 모델사업'(2005년 8월 11일 채택)을 활용해 2007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보조대상 사업은 여름에 정기적으로 냉방기를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을 녹화하거나 고반사율 도료로 시공하는 사업이다. 보조대상 규모는 시공면적이 50m² 이상(단, 옥상 녹화에 대해서는 都 및 區의 녹화계획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 비율을 초과한 규모가 50m² 이상 규모)인 사업이다. 보조금은 보조대상 경비의 절반이며, 옥상 녹화는 2000만 엔(약 1억 7000만 원), 고반사율 도료 시공은 500만 엔(약 4200만 원)이 한도다.

(www.metro.tokyo.jp/INET/BOSHU/2006/05/22g5b100.htm)

13. 쓰레기 재생 발전소가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 (영국)

영국 '지구의 친구'(Friends of Earth)는 쓰레기를 재생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쓰레기 처리 회사들이 쓰레기 소각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화석연료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쓰레기 처리 회사들이 쓰레기 소각이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재고해야 하고, 쓰레기를 재생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산소 분해(anaerobic digestion)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lanning, 2006. 5. 4)

14. 지렁이나 유용 미생물균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실험 실시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広島)市는 지렁이나 EM균(유용 미생물균)을 이용한 재활용 실험을 1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실험은 일본 전체 정령시(政令市)·중핵시(中核市) 중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퇴비화 실험을 함으로써 실현성 높은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히로시마市에서 2004년에 배출된 가정쓰레기 약 14만 8000톤 가운데 음식물쓰레기가 40%(약 5만 8000톤)를 차지하고 있다. 市에서는 2005년 7월부터 '市 가정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연구회'를 설치해 쓰레기 감량에 노력해왔다. 2006년 8월부터 실시되는 지렁이·EM균을 이용한 실험은 1년간 각 가정에서 퇴비화를 시도해 퇴비 생산량을 보고한다. 2006년 10월에는 모델지구에서 1일 30kg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생산된 퇴비를 업자가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M균은 광합성 세균이나 유산균 등 80종 이상의 유용 미생물로서 퇴비화를 위한 토양 개량제에 사용되며 탈취나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하천 정화에도 이용된다.

(www.yomiuri.co.jp/e-japan/hiroshima/news001.htm)

15. 열섬 대책으로 벽면 녹화 가이드라인 작성 (동경)

일본 동경都는 열섬(heat island) 대책으로 '벽면 녹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초록동네 만들기를 유도하고 있다. 동경都는 벽면 녹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공 사례가 적고 정보도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都 시설에 시범적으로 시공하는 등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벽면을 녹화하면 표면온도는 한여름 낮에는 10℃ 정도 낮아지고 실내 체감온도는 1.7℃ 낮아진다.

都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4개 타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시엔(甲子園) 야구장 외벽과 같이 벽면이 식물로 덮이게 하는 타입은 유지관리비가 비교적 적게 들며 벽에 부착하는 힘이 강한 식물을 선정해야 한다. 옥상에서 밑으로 뻗어 내려오는 타입도 있는데 1m²당 3만 엔(약 25만 원)에서 15만 엔(약 127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都는 시범적으로 都 환경국 청사, 독립 중학교, 신주쿠 세무서에 대해 2005년부터 벽면 녹화를 시작했으며, 수년 후에는 이 건물들 벽면 전체가 녹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tokyo-np.co.jp/00/tko/20060505/lcl_____tko_____000.shtml)

<베를린>

- 2007년 3월 폐쇄 예정인 템펠호프(Tempelhof) 공항 부지 약 300만m² 재이용 계획
 - 도심 공기순환을 위한 잔디 보존, 비행선 출발 및 도착지, F-1 경주장, 자동차 박물관 등의 활용방안 논의
-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권장을 위해 자전거도로 지도 무료 배부

도 시 교 통

16. 안전하고 매력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주차공간 설계 제안 (영국)

영국 도시재개발공사는 세심한 주차공간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공공공간, 주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시재개발공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 지침을 만들었는데 주차공간 디자인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했다. 「주차공간: 무엇이 어디서 성공하는가?」라는 제목의 이 연구보고서는, 주거환경의 질과 미적인 측면에서 문제 있는 주차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주차공간의 섬세한 디자인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www.englishpartnerships.com/page.aspx?pointerid=10A590D196D14B66A364986DD67F0B63&thelang=)

도시계획·건설·주택

17. 지방정부 도시계획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영국)

영국정부는 지방정부 평가를 위해 자체 개발한 서비스지표(Best Value Performance Indicator)를 토대로 최근 영국 전역의 292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75%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지표를 개발한 관계자는, 평가지표가 도시계획 허가의 수월성과 신속성, 인터넷을 통한 도시계획 관련 행정처리 능력 등 많은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영국정부는 밝혔다.

(Planning, 2006. 5. 12)

18. 역사건축물 보호 세부기준 작성 추진 (상해)

중국 상해市는 2002년 역사건축물에 대한 보호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市 중심부 600km² 이내에 있는 보호 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2007년 6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역사건축물 분류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 보호 건축물, 보류 역사 건축물, 일반 역사 건축물, 철거 가능 건축물, 일

반 건축물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해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기준이 확정된 이후에는 참여했던 전문가의 과반수 동의가 없는 한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상해市的 개발과 보호라는 서로 상반되는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www.shghj.gov.cn/front/contentWord.php?contentId=7964)

방 재 · 안 전

19. 방법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민간파출소 (일본)

주민 스스로 거리를 지키려는 방법 자원봉사 활동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조직한 '방법 자원봉사'는 2005년 12월 현재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약 1만 1915개로 인원으로는 약 119만 명이 전국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거점 중의 하나가 민간파출소다. 실제 파출소와는 달리 주민 자원봉사에 의한 '자경단'(自警団)이나 위탁 받은 경비회사의 경비원이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파출소는 범죄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2005년과 2006년에 총 330여 곳이 모델사업으로 인정되어, 순찰활동 용품이 무상 대여되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3년간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전국의 민간파출소 중 40%가 운영상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민간파출소는 지역 연대감의 상징적인 존재로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범죄자가 침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거나 기존에 자행된 범죄의 싹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출소 대신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지역의 거점이라는 평가를 얻는다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여러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기업체를 찾아내 게시판에 광고를 하거나 방법에 관한 이벤트를 기획해 시민에게 주지시킨다면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돼, 방법을 중심으로 한 지역센터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www.yomiuri.co.jp/e-japan/tokyotama/news001.htm)

>>> 전문가 검토의견

민간파출소 사업은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각론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의미 있다. 특히 치안이 문제되는 지역에 한해 한정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규 치안인력을 경감하고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실 중심으로 경비활동을 벌이는데, 주민 대표나 일반주민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즐거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겠다. 서울시 시민협력과 자원봉사팀이 중심이 되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

/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20. 템스강 범람 예측 조사로 수해 안전성 점검 (런던)

영국 런던 기상청은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 템스강이 어느 정도 범람하는가에 대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2006년 4월에 실시했다. 지역 악천후 등의 조건에 따른 템스강의 범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11월 영국을 강타한 태풍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최악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1953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템스강 범람 수위의 3배 높이인 7m 수위 자료도 입력됐다. 런던市와 템스강 관리 기관은 1953년 범람 사고 이후 템스강 하류에 제방을 쌓아 하천 수위를 통제해 왔으며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 사태를 계기로 악천후로 인한 도시방재 문제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있다. 템스강 모의실험 이후 브리스틀 상류의 세븐(Severn)강,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를 대상으로 하천 범람 모의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환경청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도시 홍수 통제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news.bbc.co.uk/1/hi/sci/tech/4880126.stm)

21. 재해 발생에 신속 대응하는 종합방재정보시스템 운용 (일본 미야기縣)

일본 미야기縣에서는 2006년부터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피해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방재정보시스템'(MIDORI) 운용을 시작했다. 재해 발생 직후 휴대전화 메일에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10분 이내에 피해예측도 가능해져 신속성이 기대된다. 2006년 4월 22일에 발생한 진도 4의 지진 발생 당시 일제히 휴대폰 메일이 전달되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로 부상자가 1명에 불과했다. 그 외에 헬리콥터에서 찍은 영상이나 지리정보 시스템을 제공받아 절벽 붕괴 등 재해현장을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993년에 개발된 MIDORI는 노후화되어 방대한 정보량을 감당하지 못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억 엔(75억 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개량했다. 縣民에게 휴대전화 메일 매거진 형태로 재해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는 2006년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www.yomiuri.co.jp/e-japan/yamanashii/news001.html)

- 영국 전역에서 4월 26일~30일에 '천 기저귀 주간' 행사 열려
 - 다수 지자체에서 천 기저귀 사용시 보상하는 pay-back 제도 이미 시행 중
- 영국정부, 지역개발과 투자 활성화 위해 지방정부에 정치적 자유를 줘야 한다는 리온 보고서 (Lyons Report) 발표
- 영국 산업무역에너지부, 재생에너지 전 분야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영국 밀턴키인즈市, 도심부 캠펬(Cambell) 지역에 친환경 공원 조성계획 발표

<런던>

- 런던교통공사, 어린이 교통교실 운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율 12% 감소 등 긍정 효과 나타나
 - 런던개발공사와 영국 예술가협회 공동주최로 5월 4일~7일간, 42톤의 인공 코끼리가 런던시내를 활보하는 '술탄의 코끼리쇼' 행사 열어
 - 5월 4일의 지방선거 결과 런던에서 보수당 압승
 - 보수당은 17석에서 24석으로 늘고, 노동당은 15석에서 4석으로 줄어
-